

## 국립국어원 스무 돌의 성과와 발전 방안

민현식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머리말

국립국어원이 개원 20돌을 맞았다. 1970년대 초엽에 시작한 개정 작업이 1979년 10·26 사태로 중단된 후 제5 공화국에서 1986년 아시아 경기 대회,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어 외래어 표기법 등의 개정 작업이 재개되면서 1984년에 국어연구소가 설립된 것을 뿐만 아니라 본다면 국립국어원의 역사는 30년을 바라본다.<sup>1)</sup> 더욱이 국립국어원은 세종 때의 집현전(1420), 대한 제국의 국문연구소(1907)로 이어지는 어문 연구 및 정책 기관의 전통을 잇는다는 점에서 역사적 권위는 길고도 높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들이 학문적 성실성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이뤘으며 이는 외국의 어느 언어 기관 못지않게 방대하다. 『국립국어원 20년사』에 나온 1천여 권의 연구 보고서 목

1) 국어연구원에서 펴낸 『국립국어원 20년사』에서 기관 역사를 20년으로 함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공보처, 문화공보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를 거쳐 왔어도 연혁을 소급 기록하고 있듯이 『국립국어원 20년사』에도 연혁(해적이)과 연구 업적 목록에는 국어연구소 시절의 역사와 성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25쪽의 ‘간추린 해적이’에는 포함하고 197쪽의 공식 ‘해적이’에는 제외하여 일관성이 없다.

록을 온고(溫故)와 지신(知新)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온고	지신	
역사 한국어	현대 한국어	미래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한글 박물관</li> <li>· 한글 문화유산 디지털화(100대 유산 주석 총서 발간)</li> <li>· 민족 생활어 조사</li> <li>· 역사적 한자, 한자 약체, 자형 조사, 15세기 한자어 조사</li> <li>· 이달의 문화 인물 조사(국어학사)</li> <li>· 신소설 언어 사용 실태 조사</li> <li>·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li> <li>· 한글 옛 문헌 정보 조사 연구</li> <li>·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외국어 번역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문 규범(4대 표기법, 표준 화법)의 제정, 보급</li> <li>· 한자(약자) 및 한자어 사용 실태 조사</li> <li>· 신어 조사, 우리말 다듬기</li> <li>· 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 편찬</li> <li>· 국민 언어 사용 실태 (문해력, 언어 의식, 국어 능력, 청소년, 새터민 언어 실태)</li> <li>· 외래어, 외국어 사용 실태</li> <li>· 서울 토박이말 실태</li> <li>· 지역어: 국내, 중국, 중앙아시아 실태</li> <li>· 기록(국어 연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한국어 학습용 사전, 다국어 사전 편찬</li> <li>· 국어 정보화: 21세기 세종 계획(한민족 언어 정보화)</li> <li>· 언어 개선: 가나다 전화, 공공언어, 방송 신문 인터넷 언어 개선, 교육 언어(교과서 검정) 개선</li> <li>· 국어 능력 향상: 새국어생활, 새국어소식, 국어문화학교, 언어 취약 계층(수화),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국어문화원 지원</li> <li>· 국외 한국어 보급: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인증, 연수,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li> <li>· 남북 언어 통합: 북한어 조사, 남북 학술회의, 새터민 언어 교육</li> <li>· 제도 기구 개혁, 국어 발전: 국어 기본법, 국어심의회, 국어 책임관 등</li> </ul>

위의 성과를 보면, 국어 연구야말로 역사, 현대, 미래 한국어의 세 축을 관통하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학문임을 깨달으면서 역사 한국어 연구가 좀 더 미래와 접목되어 풍성히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

다. 이제 앞으로 국립국어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현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국어 규범의 확립과 개선

헌법이 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지침서라면 국어 기본법은 국어 질서를 확립하라는 지침서이다. 국립국어원은 현대 국어의 규범과 사용 질서를 확립하고 국어 사용의 문제를 발견하여 개선하고 미래 한국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우선 한글 관련 4대 표기법 규범 질서를 확립해 언중의 사용에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 다음에 몇 가지 현안을 제시해 본다.

### 2.1.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12항 두음 법칙에서 어종(語種)에 따른 규정은 개선을 요한다. ‘란(欄)’은 ‘비고란, 독자란’과 달리 고유어 및 외래어와 결합할 때는 ‘어린이난, 스포츠난’처럼 쓰는데 이는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인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사례로 어근의 어종에 따른 구별이라 까다롭다. 한글 전용 시대에 어원에 따른 어종 식별을 언중에게 강요하는 인상이라 불편하여 ‘-란’으로 통일함이 좋다.

사이시옷 문제는 사이시옷 표기어가 많아 문제다. 한자어는 6개로 제한하였지만 이를 고유어까지 확대한다면 사이시옷의 전면 폐지까지 고려 할 수 있다. 물론 ‘내가(我)-냇가, 샛별(金星)-새 별(新星)’ 같은 경우 ㅅ 을 없애면 혼동이 있지만 문맥으로 해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2, 3음절 이상의 단어들에서 사이시옷이 과도하게 붙는 경우(죗값, 죄댓값, 죄솟값, 극솟값, 수돗물, 등굣길, 김칫국, 북엇국 등)만이라도 없어야 한다. 이러한 사이시옷 규정도 고유어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 결합, 한자어 6개 규정처럼 어종에 따른 규정이라 언중에게 불편한 것이다.

한자어 중에는 6개 한자어(셋방, 횟수, 곳간, 숫자, 찻간, 뒷간)만 사이 시옷을 적는데 ‘회수(回收)-횟수(回數)’는 구별하고 ‘대가(代價, 大家), 호수(戶數, 湖水)’는 각각 한자가 다르고 발음도 다른데 단일화하여 일관성이 없다. ‘전셋집-전세방-셋방’, ‘머리말-예사말-인사말-흔잣말’, ‘고무줄-빨랫줄’도 유사 음운 환경인데 사이시옷 표기는 다르다. ‘우유병-우윳값’<sup>2)</sup>의 사례처럼 ‘우유병’은 한자어라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식의 어종 원리 방식은 거듭 재고를 요한다.

다음의 부사 접미사 ‘-이, -히’ 어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용례들로 ‘ㄱ’ 받침 어근이 공통인데도 표기가 달라져 통일되어야 한다.

- (ㄱ) 그윽이, 깊숙이, 빼빼이, 수북이, 소복이, 자욱이, 시무룩이  
(ㄴ) 가득히, 머쓱히, 똑똑히, 넉넉히, 솔직히, 특특히

띄어쓰기는 가장 편리한 한글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냇가, 강가-건물 가, 한강 가’, ‘손끝-가지 끝’을 구별하고, ‘봄바람, 가을바람, 봄 소식’은 붙이지만 ‘가을 소식’은 아직 합성어가 아니라 사전에 오르지 않아 띄어 쓴다는 의식을 이해할 언중은 많지 않다. 특히 ‘띄어쓰기’(1988) 총론에서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 제50항에서 전문어는 합성어인데도 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쓸 수 있다고 하여 총론과 충돌을 빚어 더 까다롭다. 다음 (ㄱ)류는 전문어로 띠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 표시가 붙어 있다.

---

2) ‘우윳값’은 사전 미등재어로 ‘버스 값, 차 값’처럼 구(句) 구조라 ‘우유 값’처럼 띄어 써야 원칙이다. 그러나 언중은 합성어로 의식하여 붙여 쓰고 사이시옷 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뱃값’은 사전 등재어로 합성어이며 사이시옷도 적어 대조적이다.

(ㄱ)

경제^가치(經濟價值) 『경제』 경제 활동에 따라 생겨나는, 재화의 가치.  
경제^개발(經濟開發) 『정치』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  
경제^개발^오^개년^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 『정치』 우리나라에서 국민 경  
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시행한 경제 계획.<sup>3)</sup>

그런데 전문어 표시가 있는데도 ‘~’ 표시가 없이 합성어로 된 (ㄴ)류가 있다. 사전 편찬 시 ‘~’ 표시를 빠뜨린 실수로밖에 볼 수 없다.

(ㄴ)

경제-사상(經濟思想) 「명사」 『경제』 인류가 재화를 획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고 항상시키려는 사상.  
경제-생활(經濟生活) 「명사」 『경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그런데 전문어로 보이는데도 전문어 표시가 없는 단순 합성어도 (ㄷ)처럼 있다.

(ㄷ)

경제-관념(經濟觀念) 「명사」 재화나 노력, 시간 따위를 유효하게 쓰려고 하는 생각.  
경제-속도(經濟速度) 「명사」 자동차, 항공기 따위의 탈것이 연료를 되도록 적게 소비하여 가장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속도. ⇨ 경제속력.  
경제-평화(經濟平和) 「명사」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등 국제 경제 질서를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

---

3) ‘경제 개발, 경제 개발 오 개년 계획’은 경제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전은 정치 전문어로 처리하였다. 앞으로 개방형 지식 대사전을 만들 때 전문어 개념과 분류는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위와 같이 세 유형을 보이는데 언중은 물론 전문가도 위 세 유형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 현 규정을 준수한다면 (ㄴ), (ㄷ)을 (ㄱ)으로 통일하는 것부터라도 하여 언중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맞춤법과 관련하여 국어원이 발간하는 자료집의 설명을 보면 난해할 때가 있다. 언중이 자주 틀리는 것은 그들을 탓하기보다 우리 규정과 문법에 문제가 없는지 반성을 요한다. 즉 국립국어원에서 가나다 전화 상담 고빈도 단어 목록 4위, 17위를 보면 다음 예가 나온다.

#### 4. 못하다?, 못∨하다?

‘상상도 {못했다/못 했다}’에서 띄어쓰기가 맞는 것이 어느 것인가요?(신○○)

☞ ‘상상도 못 했다’입니다. (이하 사전의 근거 설명 생략)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못 먹다, 못 가다’는 띄고, ‘노래를 못하다’처럼 능력 부정 사례는 합성어로 붙이도록 했는데, ‘상상도 못 하다’는 띄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 위 예는 상상력이라는 능력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붙이지 말라 할 이유가 없어 ‘못하다’는 합성어로 모두 붙여 쓰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 17. 하냐?, 하느냐?

“어떻게 하냐?”라고 보통 쓰잖아요. ‘~하냐’ 이런 식으로 “안 가냐?”, “안 하냐?”라는 식으로 쓰는데 이러면 틀린 표현일까요? ‘하느냐’, ‘먹느냐’로 ‘-느냐’를 붙여야 맞는지 아니면 그냥 ‘하냐’, ‘먹냐’ 이렇게 줄여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김○○)

☞ ‘하느냐’, ‘먹느냐’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이하 사전의 근거 설명 생략)

‘안 가냐?, 안 하냐?’를 ‘안 가느냐?, 안 하느냐?’로만 쓰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일반화한 ‘안 가냐?, 안 하냐?’를 오용으로 보는 사전 풀이나 위의 해설은 고쳐 언중의 현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어사전에 나오는

문법 설명들의 미비점만 보완해도 상당히 해결될 것이 많다.

## 2.2.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도 수정 요구가 있다. 총 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위화감을 준다는 민간단체의 헌법 소원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이 규정이 개인 행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7:2로 2인의 재판관은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헌법 소원 청구자들은 부분 승소를 한 것이다. 따라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부분이 비서울권 사람들에게 비교양인이라는 의미로 위화감을 주므로 이 부분을 빼고 “표준어는 한국인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로 해도 문제 요소는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표준어 규정에는 교양인의 말이라고 정의한 표준어 규정의 총 론이 무색하게 비속어로 볼 것들이 다음과 같이 제3항 첫 용례 ‘끄나풀’부터 숱하게 나와 즉시 수정해야 한다.

제3항 끄나풀(→끈), 털어먹다(재산 따위를 둉땅 잃다)

제9항 발목쟁이(→발목)

제11항 시러베아들(→실없는 사람), 튀기(→흔혈인, 흔혈아)<sup>4)</sup>

제14항 장사치(→장수)

제15항 궁상떨다(→궁상스럽다)

제25항 농지거리(→농), 빙충이, 앓은뱅이저울, 짓고땡

제26항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불따구니/불퉁이/불때기(→불),

서방질/화냥질, 까까중/중대가리, 애꾸눈이/외눈바이,

오사리잡놈/오색잡놈,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철)

---

4) 오늘날은 ‘흔혈인, 흔혈아’란 말조차도 차별어로 보기도 한다.

표준어 교육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 연합이 1+2 언어 정책으로 모어(母語)와 2개 외국어 교육을 부과할 정도인데 우리는 외국어도 아닌 표준어를 익히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중앙어를 표준어로 함은 중앙어를 다수 인구가 사용하는 것이라 소통에서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나 지역 갈등 해소와 국민 소통을 위해 표준어 교육을 자연스레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2010)를 보면 표준어 구사력은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67.5%)이 표준어를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표준어 교육을 받은 정도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받음’이 28.5%로 나타나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표준어 교육과 함께 방언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 향토성을 보존, 발전시키는 노력이 방언 전승과 함께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동안 방언 교육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표준어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방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 밖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더 이상 개정으로 국내외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성씨 로마자 표기는 지명과 달라 국가가 강제할 것은 아니며 고유 인명은 개인 선택의 자유도 인정하되, 문중(門中) 의견을 청취한 후 표준 권장안을 만들어 계몽하는 차원으로 맡겨야 할 것이다.

### 3. 남북통일 대비 언어 정책

시급한 국어 정책 사항은 남북통일 대비 어문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 통일을 이루라는 헌법의 명령을 받고 있다. 당연히 국어 정책도 이에 기반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규범을 혼합 절충하는 제3의 규범 통일안을 만드는 일은 남북 모두의 현행 규범과 달라 대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절충은 극소화해야 한다. 북한의 어문 규범에서 장점이 있는 것이 있다면 소폭으로 취해 우리

스스로 고침이 나을 것이다. 자모 명칭이 ‘기역, 키읔, 디귿, 시옷’인 현행 규정은 전통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고려하면 이런 비일관성은 고쳐서 북한식으로 ‘기윽, 키윽, 니은, 디은, 시읏’처럼 통일하는 것이 좋다. 사이시웃을 대폭 폐지함도 마찬가지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어문 정책은 새터민의 남한 적응 연구에서 구체적 전략을 추출해야 한다. 그동안 새터민의 언어 적응 연구는 새터민이 2년 안팎이면 적응에 어려움이 없다는 보고도 나왔기에(문금현, 2006) 너무 이질화를 강조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터민을 영·유아, 초·중고생, 대학생, 성인, 직업 계층별로 다양하게 장기 조사하여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언어 통일 방안을 구축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조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4. 한국어 소멸의 위기와 외국인 200만 시대의 다문화 언어 정책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국어의 개념도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단일 민족어로서의 한민족어(韓民族語) 개념이 우세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화하여 국가 공용어 관점에서 대한민국 공용어 성격을 요구받고 있어 국어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700만 한인 동포들의 한국어 보전을 위해 ‘표준 한국어’를 정립하여 보급하고 한국어 교육 정책이 모범적 외국어 교육 정책이 되도록 연구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가구당 2.2명의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로 1.2명 수준이라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인구수가 4천만 이하로 줄고 2300년에는 수만 명밖에 안 남는다고 하여 한국어의 소멸을 경고받고 있다. 장차 영어 공용어라도 이루어지면 한국어는 가정 언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세계는 가만있어도 이슬람화한다고 말할 정도인데 이는 이슬람의 인구 증가 속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미 이슬람 이민자 증

가로 유럽의 이슬람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최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연합 정상들은 공개적으로 유럽의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sup>5)</sup> 이슬람의 전통 가치 및 샤리아(Shari'ah) 법이라는 이슬람 종교법(태형, 투석형 따위)이 유럽의 기독교/천주교 국가의 전통 가치 및 국내법과 충돌하다 보니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닥치고 있는 문제라 우리의 다문화 정책도 무조건 외국만 모방하지 말고 ‘다문화주의’와 ‘국가주의’ 관점을 조화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립해 유럽처럼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민자의 적응 유형은 ‘동화, 통합, 소외, 분리’의 4가지로 나타나는데(졸고, 2009) 우리도 문화 공존의 통합 정책을 추구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특정 이민자들이 종교법을 내세워 국내법을 거부하고 분리주의 행동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국가 정체성 교육에서 국어 정체성 교육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어사적 정체성, 국문학사적 정체성, 국어 문화사적(국어 생활사적) 정체성 교육을 확립,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심화 연구도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은 세종학당의 개척 못지않게 국내 대학의 언어 교육 기관(어학당)을 국립국어원의 ‘교육 연구 기지’로 삼아야 한다.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한국어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한국어 교육 전공 교수를 채용한 한국어교육학과와 언어교육원만이 연구 사업에 응모하도록 하여야 한국어 교육 기관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교원들의 경쟁을 통해 우수 교수 학습 자료를 공모하여 우수 교원을 선발 지원하고 세종학당도 일방적 분배형 지원 사업이 아닌 실용 연구 공모 개발 사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5) 조선일보 2010년 10월 18일 자 “독일 다문화주의 50년 완전히 실패했다”/경향신문 2011년 2월 16일 자 “조화롭게 살자더니… 우리의 가치가 싫으면 떠나라” 기사 참조.

## 5. 언어와 타 학문과의 융합 연구

심리 언어학, 사회 언어학, 전산 언어학 등의 학제 간 연구가 이미 이루 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통합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한 예로 다매체 사회화로 인해 영상 언어가 폭증하고 문자 언어가 퇴조하여 매체 언어 문제의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영화, 텔레비전의 언어와 같은 영상 언어는 물론 인터넷, 휴대 전화와 같은 영상 다매체의 도래로 인간의 언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종이 책이 사라지고 전자책(e-book)으로 대 치되고, ‘문자적 사고’를 하는 전통 인간형은 ‘영상적 사고’를 하는 인간형 으로 바뀌면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과 같은 ‘영상 중독’이 보편화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정신문화, 교육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국어 정책 도 이를 대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긍정적 영상물이 주는 긍정적 효과와 달리 부정적 영상물(게임, 폭력물 등)이 주는 부정적 효과는 국어 정책이 문자 정책을 넘어 영상 정책과 밀접한 융합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영상 언어의 윤리도 언어 윤리 안에 포함하여 연구하고 계몽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국어학과 전산 언어학의 융합 연구로 국어 정보학도 세계 제1의 수준 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방형 지식 사전 개발도 그런 목표의 하나이어야 한다. 2012년까지 27개 분야 34만 항목 규모의 전문 용어 등재를 목표로 한다는데 우선 전문 용어 분류 체계 방법부터 점검해야 한다. 《표준국어 대사전》만 해도 15년 전 분야별 전문어 사전 정보를 수합하여 편찬하다 보니 전문 용어 분류에 문제가 많다. 가령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 용 어 분류를 보면 53개 분류가 나오고 이 중에 종교어 분야를 보면 ‘가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가 나오는데 ‘종교’는 기타 종교를 뜻은 것이라지만 분 류를 재고해야 한다. ‘부활’ 같은 용어는 가톨릭에서도 쓰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기독교’ 전문어로만 표시되어 나온다. 기타 전문어에서도 이런 개념 중복 문제는 나오므로 일반어와 전문어의 기초 분류 연구가 면

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분야별로 수만 개 단어를 1인 교수와 대학원생 팀으로 짐작하게 함도 졸속이 우려된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사전이라 할 때 지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백과사전인지, 국어사전인지, 절충형인지 방향도 분명해야 한다. 국가가 이런 사전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민간 경쟁으로 하는 것보다 나은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도 설득력 있는 답을 준비해야 한다. 위키피디아에 엉터리 지식이 많아 신뢰성에 의문이 많다. 따라서 지나치게 개방형 지식으로 하는 것은 거짓 정보를 막을 장치가 없기에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등재하도록 단계를 설정하여 세계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분야별 학회, 전문가집단을 관여시켜 세계적 수준의 다국어 전문 용어 사전으로 특화하는 것이 실용성이 클 것이다. 수만 개로 과욕을 부리다 졸속이 되기보다 핵심 어 수백 개라도 제대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 6. 인문학으로서의 국어학 연구

국어학은 한국 문학, 한국 사학, 한국 철학 등과 긴밀한 융합 연구를 하여 문사철(文史哲)의 인문학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국어원에서 한글 디지털 박물관을 만들고 100대 문화유산 디지털 사업도 하여 기존 국어 고전 연구를 정밀하게 함은 물론 더 많은 국어 고전 자료를 인접 분야에서 발굴하여 ‘국어 문체사, 국어 화법사, 국어 독서사’는 물론 ‘국어 철학, 국어 생활사, 국어 국사학, 국어 의학사, 국어 예술사’ 등의 융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고전 자료 기록 보전에만 머물지 않고 창의적 상상력으로 문화적 재발견과 재창조를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진정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 정보 경연 대회에 국어 고전과 정보학을 연계하는 부문을 넣고 전국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대학생들부터 참여를 유도하여 국어 고

전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국어원 20년의 성과를 보면 한글 디지털 박물관, 문화유산 주석 작업 외에는 고전 국어 연구가 빈약한데, 한자 문화를 보전하고 한중일 한자 문화권을 제어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일본을 능가할 정도의 한자 연구 능력도 갖추도록 한자, 한자 어 연구, 국어학 관련 한문 고전 연구의 중심 역할도 해야 하며, 온 세계 문자와 언어들에 대한 보존, 분석 연구까지도 관심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7. 담화 연구의 활성화

그동안 국어학은 음운, 단어, 문장 단위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차원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 왔다. 이제는 이런 단위별 기초 연구를 심화시킴은 물론 이들 단위를 종합한 ‘담화(텍스트)’ 차원에서 다양한 국어 담화 구조 연구와 담화의 효과적 소통 문제를 연구하는 데 국립국어원이 중심에 서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 현상을 다각도로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언어 연구도 공공 담화와 그 소통 효과의 연구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이 행정 기관의 서식을 작성할 때에 어려운 행정 용어(예: 귀책사유, 봉입, 불비, 익일 등) 때문에 치러야 하는 시간 비용은 1년에 약 17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일반 국민이 치러야 하는 비용 118.3억 원과 민원 처리 공무원이 치러야 하는 비용 51.8억 원을 합한 것이다.<sup>6)</sup> 가령, ‘맘프러너<sup>7)</sup> 창업 스쿨’은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시 여성들을 위해 창업에

6) 금액 산출 근거: 어려운 용어를 1년에 1회 이상 접한 국민 총수(14,949,719명)×일반 국민이 어려운 용어를 접한 1년 평균 횟수(1.85회)×어려운 용어로 인해 추가로 들이는 평균 소요 시간(125초)×일반 국민 시간당 평균 노동 임금(12,331원). 국립국어원(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보도 자료 참고.

7) 맘프러너: ‘엄마(Mom)’와 ‘기업가(Entrepreneur)’의 합성어.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고 창업을 돋는 사업인데 ‘맘프러너’라는 생소한 말 때문에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 여성 인구 344만 명 중에서 13.7%인 47만 명이 ‘맘프러너’에 대해 설명을 듣고서야 정책의 취지를 알게 되고, 그중에서 약 6만 명이 ‘맘프러너 창업 스쿨’ 교육 과정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어려운 정책명 때문에 치러야 하는 시간 낭비 비용은 1년에 약 114억 원으로 추산된다.<sup>8)</sup>

공공언어는 대국민 홍보에서도 중요하다. 홍보와 설득의 때를 놓쳐 광우병 폭동이 확산되었듯이, 지도층과 정부가 제때 설득하고 홍보하지 않아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벌이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지도층과 정부, 국립국어원은 국가의 불통 현상과 국어 혼탁에 대해 문제의식을 통감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어떤 연구로 지도자들의 언어를 일깨우고 국민의 국어 불통 현상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가? 언어학자 레이코프(G. Lakoff)가 프레임(frame) 이론을 제시하여 미국 대통령 선거에 까지 변화를 준 것을 상기할 때 오늘날 정치, 행정 등의 공공 분야는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sup>9)</sup>

- 
- 8) 금액 산출 근거: 어려운 정책명을 접한 국민 총수×일반 국민이 어려운 용어를 접한 1년 평균 횟수(5.93회)×어려운 용어로 인해 들이는 추가 평균 소요 시간(30초)×일반 국민 시간당 평균 노동 임금(12,331원). 국립국어원(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보고 자료 참고』.
  - 9) 외국에서도 언어와 정치의 관련 연구로 유명한 언어학자인 촘스키(N. Chomsky)와 레이코프(G. Lakoff)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특히 레이코프는 촘스키의 제자로 촘스키가 언어를 이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 반하여 언어의 감성 측면을 주목하여 스승의 논리에 반기를 들었으며 촘스키가 주목하지 않은 언어의 감성적 측면을 파헤쳐 인지 언어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하였다. 레이코프는 정치 언어에 관해 유명한 책들을 써서 언어학자로서 적극적 현실 참여를 하고 있다. 그의 책 『프레임(frame) 이론』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원의 필독 지침서로 읽혔다고 한다. 레이코프는 국내에도 번역된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a progressive's handbook.』이라는 책(나의주 역, 2007)에서 선거를 ‘프레임(frame)과 프레임 간의 전쟁’이라고 정의 내리고, 승리하려면 프레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미국 정당들의 선거 실패 이유를 프레임의 부재와 실패에서 찾고, 프레임을 잘 제시하여 유권자를 설득하는 정당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단일 민족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최악이라 남북 갈등으로 민족 불통도 부끄러운데, 갈수록 계층, 지역, 세대, 성별 간 불통이 심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언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어가 선진 한국어, 교양 한국어가 되려면 한국어와 그 사용자들의 언어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죽음, 저주, 욕설, 부정, 폭력의 언어에서 생명, 축복, 칭찬, 긍정, 대화의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 개화기 신소설에는 거칠고 불안했던 당시 시대상이 언어로 그대로 표출되어 잔인한 욕설, 표현 등이 여과 없이 드러나서 이재선(1972)은 이를 당시 시대 상황 및 일본 신소설의 수사법과 관계되는 악육강식 사회의 야만적 카니발리즘(cannibalism)의 산물로 본 바 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생활도 가정, 학교, 직장의 언어폭력, 신문, 방송, 인터넷의 자극적 선동 언어와 왜곡된 거짓 정보들로 인해 개화기보다 더한 동물적, 폭력적 야만성을 보여 주어 국어가 깊이 병들어 있다.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국어 중병의 종합 처방을 제시하여 국어 수호의 퍼수꾼과 등대지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방의 하나는 국어 의식 강화와 국어 교양의 증진을 위한 기초 국어 교육을 유아,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강화하는 방안이다. 유아·초등 단계에서 국어 의식을 기르지 못한 성인들에게 아무리 국어 순화, 국어 사랑을 외쳐도 소용이 없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국어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져 국어 애호의 국어 의식을 함양하고, 독서 운동을 통해 영상 중독을 예방하며, 국어 예절 훈련을 통해 국어 교양을 높이고, 합리적 토의 토론 훈련과 민주적 회의 진행 훈련을 철저히 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훈련, 함양하지 않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꽃피우기 어렵고 선진 한국의 길도 멀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은 언론, 출판, 공공 기관을 통해 주로 국어 의식과 말버릇, 글 버릇이 굳어진 성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계몽해 왔다. 그러나

국어 순화, 국어 애호, 국어 예절은 ‘바른 말 고운 말’ 정신으로 어려서부터 체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어찌 보면 언어 실태 연구의 불가침 영역이 가정, 학교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보니 가정,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상상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언어 청정(淸淨) 지역이 아니다. 청소년기의 가정, 학교의 언어 훈련이 바르게 되어야 일생 순탄할 수 있으며 그 사회도 혼란이 적을 것이다. 최근 각종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아동들을 보면 부모의 언어와 육아 방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에 가정, 학교에서의 언어 교육이 총체적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가정 언어, 학교 언어의 연구를 통해 치료 방안을 제시하고 직업별 성인 언어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종의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문맹률을 낮추고, 높은 교육열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러하듯 우리가 교양 있는 한국어를 가지고 국어 예절을 갖춘 품위 있는 한국어 사용자들로 거듭나지 않으면 선진 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립국어원의 할 일도 자명하다고 본다.

## 8. 맷음말

국립국어원은 그동안 수많은 연구 성과로 국어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2010)에 따르면 국민의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45.5%로 나타나 2005년 응답률 60.9%와 비교할 때 국어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방송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항목에서는 2005년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9.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68.9%로 11%나 낮아졌으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제한해야 된다’라는 항목에서는 2005년 응답률 91.2%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75.8%로 크게 낮아져 국어 의식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국립국어원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고, 갈 길이 멀다는 증거이다.

다문화 사회화, 다매체 사회화, 국제화, 정보화하는 국어 환경 속에서 선진 한국에 걸맞은 한국어를 위해 국어 정책도 이에 신속히 대비하고 대처하려면 국립국어원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정책의 직접적 실천 부문인 공공언어, 교육 언어, 언론 언어, 출판 언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원, 언론인, 출판인 등의 전문가를 계몽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국어 정책과 국어 발전을 같이 고민하는 핵심 동반자로 여기고 같이 국어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계 10 위권의 뛴어가는 국력을 바탕으로 해외 동포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표준 한국어’를 구축, 보급하고 전 세계 한국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지원하며, 개발 도상 국가의 언어 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세계 제일의 언어 연구 및 정책 기관으로 발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발전하도록 전 세계 언어에까지 관심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8),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 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0), 『국립국어원 20년사』, 국립국어원.
- 문금현(2006), 『새터민 언어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민현식(2009), 언어 습득 및 문화 관련 이론의 동향과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24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10), 국어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 문제: 다문화론에 대한 비판을 위하여, 『세계한국어문학』 3집, 세계한국어문학회.
- 이재선(1972), 『한국 개화기 소설 연구』, 일조각.
- 조지 레이코프, 로크리지 연구소 지음, 나익주 역(2007), 『프레임 전쟁: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 전략』, 창비출판사[원제: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a progressive's handbook.]
-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